

# 全州病院



柳仁相  
理事長



千熙斗  
院長



▲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 환자중심병원 운동전개

“환자중심병원”을 선언하고 '96년 3월 全州市 完山區 中華山洞 2가 659번지에 개원한 醫療法人 和庭財團 全州病院(理事長 柳仁相, 病院長 千熙斗)을 방문했다.

병원입구에서 따뜻한 미소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건네는 간호사의 인사부터 병원을 처음 찾는 환자들에게 상세한 병원안내를 해주는 모습은 어느 병원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全州病院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현대식 건물로 단장하여 44개 병실 183병상, 16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 24명, 간호직 92명, 행정직 39명등 200여명의 직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날로 급증하는 임원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2백병상을 갖춘 병동을 증축하고 있는 전주병원은 증축 건물이 완공되는 오는 9월경이면 연건평 3천여평의 매머드급 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전주병원의 이러한 급성장은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무엇보다도 개원 초기부터 내세운 환자중심병원의 이미지가 지역사회에 어느만큼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미 개원전인 지난 96년 2월 전직원 친절봉사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원이 친절정신으로 개원한 전주병원은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 가량 전직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친절 훈련교육을 통해 친절을 생활화하는등 지금까지의 병원과는 다른 변화하는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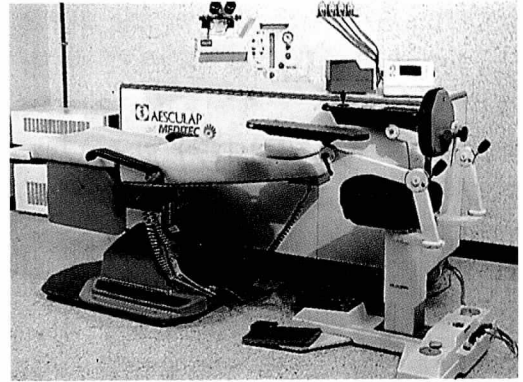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의사분위, 간호사분위의 운영형태가 아닌 진정한 병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운영이야말로 복지의료행정으로 갈 수 있는 첫번째 과제인 것이다. 전주병원은 병원행정을 친절분위의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들에게 늘 편안한 휴식처 공간을 만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전주병원의 자랑은 여러가지가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전산시스템 완비와 각 진료에 필요한 검사자료를 자동 운송해주는 Air Shoot등 최신장비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절약, 친절과 봉사정신을



▲ 친절교육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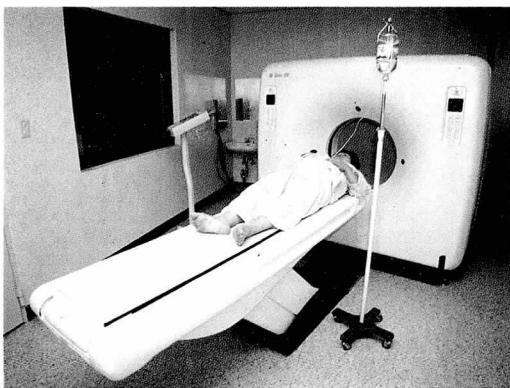
도입.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 16개 진료과를 둔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수준높은 진료서비스와 요로결석을 손대지 않고 방출케하는 체외 충격파쇄석기, 손쉽게 뼈의 무기질 함량과 밀도를 알 수 있는 골밀도 측정기, 질환진단에 탁월한 초음파 측정기, 디스크 치료에 효과적인 아쿠아피디, 미세한 부분도 식별이 가능한 전자 위 내시경, 복잡한 장기의 모양이나 내부구조, 각 기관들의 해부학적 관계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최첨단의 컴퓨터를 내장하여 영상을 매우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어 검사시간 단축 등으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나선형 CT촬영기, 엑시머 레이저는 고도의 근시, 난시를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력교정 수술장비로서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품(FDA)에서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 수술교정에 대해 안전한 방법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을 만큼 시력교정의 혁신을 예고하는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전주병원의 건강진단은 한정된 장소의 획일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소관 전문의사의 정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을 뿐



▲ 엑시머레이저

만 아니라 비만도 측정, 골밀도 검사, 유방촬영, 여성난소암 검사 등 성인병과 관계가 깊은 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진료정보, 검사내력, X-RAY FILM, 안구사진, 초음파, CT 등 화상정보까지 동시 수록할 수 있는 고가의 광카드를 무료로 주는 등 환자중심의 병원운영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전주병원과 전주대학교는 무의촌 의료사업과 사회공공복리사업, 무료진료사업 등 10개 항목에 걸쳐 협력할 것을 상호 약정하는 등 학계와 연계하여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친절과 봉사를 병원 운영 방침으로 정한 것은 화정대단 의료법인 전주병원 柳仁相 이사장이 평소 환자를 돌보는 자세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지방병원의 핸디캡을 벗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각 진료과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환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색선택된 진료방안을 모색하며 병원 확장을 위해 지난 96년 8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을 매입하고 병원 본건물과 매입건물을 연결시키는 건물의 신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본 병원은 연건평 3천여평의 확장된 규모에서



▲ 나선형 C.T

급증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테니스와 비둑으로 심신을 관리하며 인생을 살면서 서로가 협조, 봉사하는 자세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柳이사장이 있기에 개원초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으며 오늘의 병원을 전주의 명물로 만들 수 있었고 더욱더 나아가 세계화에 걸맞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환자를 친지나 가족처럼 생각하고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를 갖자고 모든 직원들에게 얘기한다”며 이제는 모든 병원들도 기존 병원의 틀을 벗어나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의료행정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병원들이 환자를 위해 더욱더 개선하고 발전하는 병원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환자중심병원」 「환자가 주인인 병원」 「노력하는 병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柳이사장이 있는 한 이지역에 환자중심의 의료행정을 뿌리내릴 수 있고 이지역 주민들의 의료행정을 최상의 진료와 친절함 봉사를 펼쳐 진료에 앞장서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한 병원으로 성장하길 모두 바라고 있다.



▲ 아쿠아·피티

“전주병원은 철저한 환자 중심의 병원입니다. 환자가 입원했을 때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마음 든든한 간호를 펼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병원을 들머리는 순간부터 따뜻한 인사로 맞이하고 언제나 포근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환자에게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늘상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千熙斗 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주병원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직원등반대회



▲ 매주 월요일 정기조회